

선동열호 '예비 109명' 최종 승선 여부, 리그 활약 달렸다

1차 예비 엔트리에 10개 구단 주전급 선수 대부분 발탁돼
6월말 최종 엔트리 발표...2개월 남짓 리그 활약 최대 변수

2018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1차 예비 엔트리에 KBO리그 10개 구단 주전급 선수 대부분이 포함됐다. 최종 엔트리에 들기 위해서는 리그 활약이 중요해졌다.

선동열 한국야구대표팀 감독은 9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대표팀 예비 엔트리 10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투수 52명, 포수 7명, 1루수 6명, 2루수 8명, 3루수 9명, 유격수 8명, 외야수 19명 등 총 109명이다. 대학 선수 4명을 제외하면 105명이 KBO 리그에서 뛰고 있는 프로 선수다.

올 시즌 KBO리그 등록 선수는 총 609명이다. 리그 전체 선수 6명 중 1명이 예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팀별로는 두산이 16명으로 가장 많다. NC가 13명으로 뒤를 이었고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팀 KIA는 12명이 발탁됐다. 삼성(11명), SK(10명), LG(10명)까지 6개 구단은 10명 이상이 포함됐다. 주축 선수 대부분이 대표팀 승선 가능성을 열었다.

대표팀 최종 엔트리는 24명에 불과하다. 5배수에 가까운 인원이 1차 엔트리에 뽑혔다. 선동열 감독은 1차 예비 엔트리에 들지 못한 선수들은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못 박았다. 부상 등 변수를 고려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뽑았다.

최종 엔트리 발표는 6월 말이다. 앞으로 두 달 남짓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2차 엔트리를 추리는 과정 없이 곧바로 최종 엔트리에 들 선수를 선발한다.

대표팀에 최종 승선하기 위해서

는 전반기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시즌 초반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 주고 있는 고졸 투기 3인방이 이름을 올린 것만 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곧 시즌이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활약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따라서 예비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는 최종 엔트리 발표 때까지 리그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아시안 게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명성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두 달 남짓 기간 활약이 미미하면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에 선수들을 포함해 병역 미필 선수들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리그 일정이 될 전망이다. 누구보다 아시안 게임 출전이 간절한 선수들이다.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KBO 회의실에서 선동열 감독과 코치들이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예비 명단 선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선동열 감독과 이강철 두산베이스 코치, 이종범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유지현 LG 트윈스 코치, 정민철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진갑용 삼성라이온즈 코치, 김재현 SPOTV 해설위원이 코치로 참석했다.

선동열 감독은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 이번 예비 엔트리는 2년 뒤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발탁되지 못하더라도 눈도장을 찍어 둘 필요 있다.

선동열 감독은 "최종 엔트리 제출은 6월이고 본 경기는 8월이다. 두 달 동안 공백이 있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부상이 있을 수도 있다"며 "부상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가 나오면 문제가 된다.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개막전 우승 김지현, 랭킹 10계단 ↑...66위서 56위로

평산산 22주 연속 1위...박인비 3위 유지



지난 8일 롯데 스카이하일 제주CC에서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우승한 김지현.

김지현(27·한화큐셀)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국내 개막전 우승으로 세계랭킹이 10계단 상승했다. 10일 롤렉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김지현은 랭킹 포인트 1.79점으로 지난주 66위에서 56위가 됐다.

김지현은 8일 막을 내린 KLPGA 투어 국내 대회 개막전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경쟁

자들을 물리치고 우승. 시즌 첫 승이자 통산 4승을 거뒀다.

지난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순위 변동은 크지 않았다.

평산산(중국)이 6.89점으로 22주 연속 1위를 지켰다. 렉시 톰슨(미국)은 6.72점으로 2위다.

지난주 6계단 상승하며 3위에 오른 박인비(30·KB금융그룹)는 물론 박성현(26·KEB하나은행), 유소연(28·메디힐)이 3~5위를 유지했다.

에리아 쥘타누즈(태국), 김인경(30·한화큐셀),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크리스티 커(미국), 최혜진(19·롯데)이 등락 없이 순위를 뒤흔고 행상했다.

고진영(23·하이트진로)은 한 단계 하락하며 18위가 됐다.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에서 마지막 이글과 함께 3위에 오른 이정은(22·대방건설)은 30위에 위치했다.

뉴스스

골프여제 박인비, 한국여자오픈 출격

오는 6월 14일부터 나흘간...국내대회 첫 승 도전

'골프 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6월 열리는 한국여자오픈 출전을 확정하고 데뷔 첫 국내 대회 우승에 재도전한다.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조지워싱턴은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개최하는 '기아자동차 제32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0억 원)에 박인비가 출전한다고 9일 밝혔다.

박인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7승 포함 통산 19승을 거둔 세계 여자골프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최연소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고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며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LPGA 투어는 물론 유럽여자프로 투어(LET)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정상에 올랐지만 유독 국내 대회에서는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박인비는 2005년 태생배 제19회 한국여자오픈에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한 경력이 있다. 당시 쟁쟁한 프로 선배들과 경쟁해 공동 13위를 하며 베스트 아마추어 상을 수상했다.

13년 만에 한국여자오픈 출전을 확정짓고 커리어 첫 국내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박인비는 "아마추어로 출전했을 당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추억이

있다. 때문에 프로로 전향 후에도 꼭 다시 참가해서 우승에 도전하고 싶었다. 올해 그 기회가 찾아온만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도 국내의 많은 팬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올 시즌 우승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한국여자오픈은 한국을 대표하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답게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한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올 시즌 KLPGA 투어 국내 대회 개막전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김지현(27·한화큐셀)을 비롯해 지난 시즌 6관왕 이정은(22·대방건설), 슈퍼투키 최혜진(19·롯데) 등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스

"태극마크 새 주인 가리자"

오늘 쇼트트랙 대표선발전 개최...111명 도전 세계선수권 최상위 황대현·최민정 자동 선발

2018~2019시즌 국제무대를 누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이 11일부터 목동실내빙상장에서 개최된다. 심석희(한국체대), 김아랑(고양시청), 임효준(한국체대), 서이리(화성시청)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들도 동일 선상에서 경쟁한다. 다만 지난날 2018 국제빙상

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 입상 선수 중 남녀 최상위를 기록한 황대현(한국체대)과 최민정(성남시청)은 자동 선발된다.

11일과 12일 진행되는 1차 선발전에는 111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1차 대회 남녀 상위 각 24명의 선수에게만 14일과 15일 치러질 2차 대

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차기시즌 국가대표는 남녀 각 8명이다. 자동 선발자 1명씩을 제외한 남녀 각 7명의 선수를 선발한다. 이중 다음 시즌 ISU 월드컵 시리즈에 출전하는 선수는 남녀 각 6명, 세계선수권은 5명(개인종목은 선발 순위 1~3위)으로 제한된다.

캡틴 기성용 "손흥민, 상대가 두려워 할 선수"

"대표팀서 비중 무척 커...월드컵 큰 활약 기대"

2018 러시아월드컵에 나갈 한국 대표팀의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티)이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손흥민(토트넘)의 비중이 무척 크다는 손흥민이 월드컵에서도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기성용은 10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과 단독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상대팀이 두려워할 선수다. 언제든지 기회를 만들고 득점을 올릴 수 있다"고 칭찬했다. 기성용은 "우리 팀의 공격은 손흥민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영어와 10번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월드컵에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확신했다.

기성용은 월드컵을 앞둔 각오. 2002년 한일월드컵의 추억, 축구 인생에 영향을 미친 선배들 등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한국이 4강에 오른 2002년 월드컵을 두고 "모든 거리가 붉은 불결로 가득했다. 나는 당시 후추에 있어서 불리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없었지만 TV로 지켜봤다"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은

상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회상했다.

"이탈리아의 16강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탈리아의 훌륭한 수비로 골을 얻기 어려웠지만 한국은 해냈다. 토너먼트 최고의 경기였다"

우상으로는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도 꼽았다. 선수 시절 홍명보 전무는 수비 라인을 책임지며 4차례나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 기성용은 "홍명보는 매우 지능적인 선수였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추어올랐다.

함께 뛰 박지성에게도 배운 점이 많다고 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최고의 스타였고 나는 막 대표팀에 뽑힌 어린 선수였다. 그에게 배운 점이 많다. 그의 태도와 정신력은 대표팀 모든 선수들의 본보기가 됐다. 스타였지만 거만하지 않았고, 선수로서 무척 예의가 바랐다."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스웨덴, 멕시코, 독일과 F조에 묶였다. 모두 만만찮은 상대들이다. 기성용은 스웨덴과의 첫 경기를 16강 진출의 분수령으로 꼽았다. "모두 우리보다 FIFA 랭킹이 높은 팀이지만 축구에



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기성용은 "스웨덴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이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반대의 경우 조별리그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두 차례 월드컵을 경험한 기성용은 이번 대회에서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기성용은 "지난 두 번의 월드컵과는 다를 것이다. 이제는 팀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더해졌다. 주장으로서 다른 선수들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 압박이 크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조국의 주장이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경이로운 존재' 오타니, 메이저리그 이주의선수 선정

MLB닷컴 "평가 과장된 것 아니란 걸 입증"



메이저리그(MLB)에 태풍급 센세이션을 몰고 온 오타니 쇼헤이(24·LA 에인절스)가 아메리칸리그(AL) 이 주의 선수로 선정됐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

은 10일(한국시간) "투타 모두에서 경이로운 활약을 펼친 오타니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과장된 것이 아니란 걸 입증한 것과 동시에 더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극찬

했다.

오타니는 민화에서나 있을 법한 1주를 보냈다. 타자로 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89(18타수 8안타) 3홈런 7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310을 기록했다.

동시에 투수로 2경기에 선발 등판해 모두 승리투수가 됐다. 13이닝을 책임지며 삼진을 18개나 잡았다. 평균자책점은 2.08에 불과하다.

첫 등판에서 6이닝 3실점한 오타니는 9일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경기에서는 7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했다.

내셔널리그(NL)에서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우안 투수 제임스 타이운(27)이 선정됐다.

타이운은 고향임을 극복하고 메이저리그로 돌아와 지난 주 2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1.28의 성적을 거뒀다.

9일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에서 9이닝 1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으로 개인 첫 완봉승을 따냈다.

뉴스스